
큐비즘적 요소를 응용한 도자 조형

The Formative Ceramic Arts by Applying Expression of Cubism

김석호*, 김승연**, 김승민**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홍익대학교 교양학부**

Seok-Ho Kim(ssuko@hanmail.net)*, Seung-Yeon Kim(uli81@hanmail.net)**,
Seung-Man Kim(ksm840555@naver.com)**

요약

현대의 도자 조형은 순수 조형사고에 의해 보다 신선하고 개성적인 조형물의 개념으로 넓게 확장되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요구에 의해 개성과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생활전반에 정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제시하고자 입체주의의 표현양상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대상을 복수시점으로 감지하고도 2차원적인 평면에 표현한 입체주의 시대 회화의 한계를 넘어 입체감과 공간감의 표현을 위해 조형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제작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작품을 제작하기에 앞서 20C 미술계의 커다란 전환점이었던 입체주의의 표현 양상과 현대 도예의 영역확장에 대한 선이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위의 연구를 통하여 기존개념에서 탈피해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보니 창의적이며 실용성을 겸비한 개성적인 조형물로서 새로운 가능성이 엿보였다. 이는 생활 속의 예술로 도자 조형의 영역을 확대시켜 연구대상으로서 현대도예의 한 분야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중심어 : | 입체주의 | 도자조형 |

Abstract

Modern figurative work is designed to have more creativity and characteristic traits by pure thought of the formative ceramic arts. In compliance with the demand which is various the design development could be satisfied an individuality and a taste is become accomplished. In this view, this study looks over expressive aspect of Cubism to present partition as a independent formative ceramic arts is able to contribute emotionally to our whole lives. In this procedure, this work is produced to express a three-dimensional effect and a spatial effect, approaching a figurative side. This i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Cubism art expressed in a two-dimensional surface in spite of its multi-dimensional observation of a given object. Accordingly, this study tries approaching pre-understanding of expressive aspect of Cubism which was the important turning-point in 20c art and expansion of the modern ceramic art field before producing the work. This study shows the possibility to become a creative and practical ceramic art work, approaching the new point of view breaking from the established conception. Consequently, the field of ceramic art could be expanded to a part of modern ceramic art as an object of study in art of life.

■ keyword : | Cubism | Multi-dimensional Observation | Formative Ceramic |

1. 서론

1. 연구목적

현대는 산업의 고도화로 인한 대량생산체제하에서 획일적이며 비개성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성의 회복과 정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인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실내 환경은 보다 개성적이면서 정신적인 여유와 안락함을 줄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입체주의 시대 회화의 자유롭고 활달한 감성을 도입하여 현대인의 다양한 표현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모티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주어진 대상을 복수시점으로 감지하고도 2차원적인 평면에 표현한 입체주의 시대 회화의 한계를 넘어서 입체감과 공간감을 지닌 도재 조형물을 제작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변화를 주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주의 작품의 표현양상을 도예의 표현 영역으로 끌어들이어 작품창작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작품을 제작해 봄으로써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 개발 연구하고자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 조사를 통한 이론적 배경연구와 그것을 토대로 한 작품제작으로 구성되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각종 문헌과 선행연구 결과물들을 통해 큐비즘의 개념과 문헌자료 그리고 박물관 개인소장품으로 전해지는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큐비즘 회화의 선이나 구도 등 조형적인 특징을 분석하여 그 표현양상을 살펴보고 현대미술에 끼친 영향까지 고찰해 보았다. 사람의 얼굴 형상을 주 소재로 하여 빠른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그 색상은 백매트유, 흑매트유, 투명유, 눈꽃유 그리고 초벌화장토를 사용하여 간결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구멍을 뚫어 철제 구조물을 끼워 넣음으로써 다른 재료와의 조합도 함께 시도해 보았다.

II. 작품형성의 이론적 배경

1. 입체주의의 개념과 표현

가. 입체주의의 개념과 의의

20C 미술계의 커다란 전환점이었던 입체주의(큐비즘 cubism)는 1908년부터 1914년 까지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하여 유럽지역에 파급된 미술 혁신운동이다. 이 명칭은 1908년 마티스(Henri Matisse)가 브라크(Georges Braque)의 연작인 「에스타크 풍경」 <도판 1>이라는 입체주의적인 풍경화를 평가하면서 “이것은 작은 입방체(cube)일 뿐이다”라고 말한 것에서 연유했다. 즉 큐비즘이란 용어는 인상주의를 비롯한 근대의 혁신운동이 일반에게 인정받지 못하자 그로 인한 경멸이나 비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입체주의는 세잔(Paul Cézanne)의 전통 원근법의 무시와 대상의 해부학적인 분해에서 아프리카 조각의 상징적인 단순화와 조형상의 자율성을 그들의 서구적인 인식 안에서 수용하고 전이시켰던 회화혁명에서 비롯되었다. 1787년 칸트(Immanuel Kant)는 그의 저서 ‘순수이성비판’에서 공간과 시간의 정의를 엄격하게 규정지으면서 이를 철학적으로 규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어떠한 직관이라도 모두 시간을 선험적 조건으로 전제하므로 시간이 공간보다 우선한다고 하였다. 즉 공간을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는 시간은 폐지된다고 주장하였다. 대략 1880~1914년의 짧은 시간에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적 사회적 상황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1905년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절대적 비공간의 시간은 끝났다고 보는 특수상대성이론을 발표하여 칸트의 철학적인 연구 안을 자연과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뒷받침해 주었다. 그 원리에 의하면 천문학 거리를 포함하는 공간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서로의 함수이며 시간이 공간의 3차원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다. 공간적 요소를 이루는 조형예술은 작품과 관람자의 만남에서 형성되는 심리적 시간성, 작품자체의 고유한 시간 그리고 작품과 작가의 사이에서 일차적으로 끝나 버릴 수 있는 창조행위 등 시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1]. 3차원의 정적인 개념에 시간이 부가된 4차원의 개념은 입체파를 형성했으며, 유럽회화를 르네상스 이래의 사실주의 전통에서 해방시킨 회화혁명으로 지칭되

고 있다.

나. 입체주의 작품의 표현 양상

19c말 이후로 급격히 변화한 회화공간은 20c초 큐비즘의 태동과 함께 그 모습이 새로워졌다. 큐비즘 회화 태동은 그 기원을 세잔과 흑인 예술에 두고 시작되었으며 그 어떤 시대의 회화공간과 차별화된 획기적인 공간의 표현을 시도하였다.

미술사에서 15세기 원근법을 제1의 혁명이라 한다면 제2의 혁명은 20C초 큐비즘이라 할 수 있다. 르네상스 이래로 서구 회화의 바탕이 되어온 원근법은 2차원인 평면에 3차원의 물체를 그리는 기본이었다. 하지만 세잔은 평면의 존재를 자연에서의 깊이와 질량에 대한 자신의 감각과 조화시키려고 하였고 그 결과 원근법의 파괴가 수반되었다. 즉 큐비즘은 공간과악에 있어서 르네상스 원근법이 무너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4]. 또 다른 특징은 대상을 바라보는 시점의 복수화를 통한 분해이다. 복수시점이란 방향성의 상실 즉, 여러 시점이 동시에 대상을 파악한다는 것으로 어떠한 시점도 절대적인 시점이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대상의 전체적인 실체를 파악하려 하였다.

시점의 다양성은 화면의 평면성을 강조한다. 그 결과 주어진 대상을 복수시점으로 감지하고도 2차원적인 평면에 유기적으로 통합된 4차원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은 왜곡되고 분해될 수밖에 없다. 즉 큐비즘의 변형적 수법은 이렇게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입체파는 사물을 단편으로 분할하여 면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단편들은 화면의 수직면에 약간의 각도로 기울어져 수평, 사선, 수직의 기하학적 형태로 결정화 된다. 그리고 이러한 단편들이 중첩되고 공통적으로 중첩된 부분을 양보하지 않으려 할 때 공간적 차원의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위해 능동적으로 투명성이 부여되거나 단편들의 모서리가 서로 유출되어 해체됨으로써 불투명성을 띄기도 한다. 여기까지는 사물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분석적 큐비즘시대이며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색채가 다시 사용되어 평면적인 색면 구성과 사실적인 대상 또는 화면에 악보, 신문지, 벽지 등의 인쇄물을 붙이는 콜라주

(College), 파피에콜레(Papiercolle) 기법이 사용된 종합적 큐비즘시대가 형성되었다. 즉 분석적 형태를 재구성하여 대상을 좀 더 알아보기 쉽도록 색 면으로 넓게 나타내어 단순성과 역동성을 표현하였다.

2. 현대미술과 입체주의

가. 입체주의가 현대미술에 끼친 영향

파리에서 시작된 입체주의는 유럽 전체, 심지어 러시아 회화에까지 파급되어 나갔다. 전 유럽에서 수많은 작가들이 이 양식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프랑스에서 발원한 입체주의를 기초로 새로운 양식들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현상은 회화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조각, 나아가 기하학적 기본도형에 의존해서 건물을 지었던 건축 부문에도 어느 정도 해당되었다. 입체주의 회화가 등장하고 곧바로 입체주의 조각도 함께 전개되었다. 입체주의 조각은 피카소의 조형 실험을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 피카소는 스스로 화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각 작업에도 몰두했다. 피카소는 이후 수년 동안 회화의 형상언어를 새롭게 발전시키려 노력한 결과 콜라주를 생각해 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조형작품이 만들어지게 된다. 예컨대 캔버스에 종이 조각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이미 평면적인 회화의 2차원성을 넘어서는 일이다. 피카소는 다양한 소재들을 사용하여 부조작품을 제작하였는데 이러한 발전은 당연한 논리적 결과였다.<도판 2,3>피카소에게 새로운 자극을 받은 것은 특히 이미 파리 입체주의 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각가들이었다. 그 중에서 레이몽 뒤상-비용(Raymond Duchamp-Villon)은 양감과 부피에 변화를 줌으로써 역학과 움직임이라는 새 주제들을 위해 역동성과 리듬감이 배어나오도록 하고 있다.<도판 4>

아르키펜코(Alexandr Porfirievich Archipenko)는 20세기 초 작가들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인물에 속한다. 그는 입체주의 단상들을 흡수하여 이것을 기초로 회화와 조각의 결합체 즉 입체회화라는 분야를 발전시켰다.<도판 5,6>입체파와 거의 동시에 파리에 모습을 드러낸 움베르토 보Umberto Boccion(1882~1916) 이탈리아, 조각가 및· 화가 초니(Umberto Boccioni)와 같은 미

래파 작가들 역시 조각 작업을 했고 그들의 주제인 움직임·리듬·역학 등을 묘사하기 위해 동시성이 스며든 새로운 양태의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이 설정한 목표는 상당히 달랐다. 미래파작가들은 애초부터 사회전통과 상아탑적인 것 일체와 싸우기 위해 나섰다.<도판 7>[10] 이와 같은 대담한 요구를 조형적으로 실현한 작품들이 속속 뒤따랐으며 20세기의 구성적 조형이라 불리는 경향은 미술의 새로운 이해의 길을 마련해 오늘날에 이르게 했다.

나. 현대 도예개념의 변화

현대도예의 양상은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작업하고 실생활에 활용되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도자, 전통적인 방법으로 작업하고 있으나 기능적인 면보다 장식적인 면에 우위를 둔 독특하고 섬세한 도자 그리고 기물의 형태를 벗어나 조각화한 영역으로 점토가 표현의 대상 및 수단이 되고 형태에 절대적인 개념을 부가하여 시각적인 조형물로 인식되는 도자이다[25]. 이러한 현대도예의 발생과 형성에 지배적 영향력을 끼친 사건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빅토리아 시대의 미술공예운동, 버나드 리치(Bernard Howell Leach)에 의한 영국과 일본의 미술공예 철학의 영향 그리고 1950~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발표된 순수예술의 형식으로서의 도예를 들 수 있다[6]. 특히 도자예술의 급진적인 전환기로 도자예술을 순수예술 영역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본격적인 양상들은 1945년에서부터 1965년까지로 본다. 이 시대의 작품들은 도자 조각이 주된 경향을 이루면서 전통적인 제작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창작의 시발점이 되는 시기이다. 먼저 미국에서는 추상표현주의 도예가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유럽에서는 조각가, 화가들이 공방 도예가들과 협업을 통해 작품을 제작했고, 일본에서는 전위 도예가들이 출연하였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 전개된 도자예술의 급진적 변환은 문화적 시대적 배경이 다른 지역적인 차이점을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전통을 극복하여 새로운 양식을 추구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20세기 중반에 이르자 예술가들은 유행처럼 도예작업에 빠져들었고 이전의 단순한 접근에서 벗어나 점토를 이용하여 다양한 실험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시도를 하게 되었다. 피카소의 유희정신을 바탕으로 한 도예작품<도판 9>, 샤갈(Marc Chagall)의 몽상적이며 시적인 도자<도판 10>, 레제의 기계시대의 미학을 통한 도자 조각과 부조<도판 11>, 폰타나(Lucio Fontana)의 공간개념을 바탕으로 한 도자 오브제<도판 12>, 미로(Joan Miró)의 조각적 오브제와 특유의 기호와 선으로 장식된 도자벽화<도판 13>, 그리고 실험예술집단인 코브라(COBR)그룹의 표현주의적이고 초현

참고도판		
 <p><도판 1> 브라크, 「에스타크풍경」, 1908</p>	 <p><도판 2> 보초나, 「공간속에서 일회적으로 지나가는 연속 형태물」, 1913</p>	
 <p><도판 3> 뒤상-비용 「거대한 말」, 1914</p>	 <p><도판 4> 피카소 「입생트 술잔」, 1914</p>	 <p><도판 5> 피카소 「구성:바이올린」, 1915</p>
 <p><도판 6> 아르키렝코 「권투시합」, 1914</p>	 <p><도판 7> 아르키렝코 「두 여인」, 1920</p>	

실주의적인 도자기 오브제<도판 14> 등 많은 예술가들이 그들의 개성적 미의식이 투영된 도예작품을 남겼다. 이것은 전통을 극복하고 자신의 양식을 추구하려는 현대의 도예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9].

참고도판	
 <p><도판 8> 후앙 미로 「다색의 얼굴」, 1946</p>	 <p><도판 9> 파블로 피카소 「콘도르」, 1947</p>
 <p><도판 10> 페르낭 레제 「노란사과」, 1951</p>	 <p><도판 11> 아스거 요른 「무제」, 1954</p>
 <p><도판 12> 마르크 샤갈 「여인과 꽃」, 1962</p>	 <p><도판 13> 루치오 폰타나 「무제」, 1968</p>

1950년대는 미국 회화와 같이 미국 도자에서도 추상 미술의 영향으로 인한 혁신의 시기였다. 이 기간은 오랫동안 미국 도예가들이 유럽의 도자와 디자인의 양식과 가치에 속박되었던 구속을 탈피하여 자체 내의 역량을 발견하고 키워나간 시기였다.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고자하는 모색기에 영국의 도예가인 버나드 리치는 동서양의 안내자로 불릴 정도로 서로 간에 도자예술의 조화와 결합을 위해 노력한 도예작가이다. <도판 15> 그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미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지니지 못하는 서구의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동서 문화를 통합시키는 일이 절실히 요청된다

고 주장하였다[9]. 리치의 이론에 힘입어 더욱 보편화된 공방도예는 1940년대 후반에 이르러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리치의 영향력에 힘입은 실용도자기들로 도공의 장인 전통에 중점을 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피카소와 같은 예술가들의 도예작품과 그 영향을 받아 실험적이고 창의적으로 접근하여 조각적 성격이 강한 작품들이다[7]. 현대 도예 태동은 로스앤젤레스의 피터 볼커스(Peter Voulkos)의 자유분방한 지도하에 발생한 오티스 그룹(Otis Art Institute)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도자의 개념에 대한 변역을 시도하였다.

참고도판	
 <p><도판 14> 버나드 리치 「전투」, 1950</p>	 <p><도판 15> 피터 볼커스 「5,000 피트」, 1958</p>
 <p><도판 16> 피터 볼커스 「갈라스 바위」, 1959-61</p>	 <p><도판 17> 루디 오티오 「구성」, 1961</p>
 <p><도판 18> 존 메이슨 「창 형태」, 1963</p>	 <p><도판 19> 케네스 프라이어 「메아리」, 1997</p>

이후 피터 볼커스<도판 16,17>, 존 메이슨(John Mason)<도판 18>, 루디 오티오(Rudy Autio)<도판 19>, 케네스 프라이어(Kenneth Preiss)<도판 20>등이

주축이 되어 자신의 도자언어를 성숙시키면서 이때에 이르러 미국 도자는 새로운 면모의 발전기로 접어들게 된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공예에 대한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해방감과 자유에 의한 창작 활동이었다. 표면처리에서 나타나는 유희성, 그리고 형태와 색채, 또 직업자체의 유희는 그들 작품의 근본미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사고를 이어 받은 도예가들에게 계속해 이어져 오고 있다. 조각적인 표현을 위한 점토의 응용에 대해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나갔던 볼커스는 1955년부터 어셈블리지의 개념과 방법들을 수용하였고 에폭시(epoxy)를 사용하여 분리된 유니트(unit)들로 용기들을 조립하기 시작했다. 결국 형태적인 면에 있어서 담을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하는 볼륨으로서의 항아리를 덜 다루게 되었고 주로 매스로서의 항아리를 제작하였다[19].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점토의 개념 혹은 도자의 개념에 대한 완전한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방식에 의한 제작방법들이다.

III. 작품연구

1. 디자인의도



사람의 얼굴 형상을 주 소재로 하여 빠른 시각적인 전달을 위해 간결하게 이미지화하였다. 여기에 시점의 복수화를 통해 대상을 분해한 입체주의의 표현양상을 도입하여 신선하고 지루하지 않도록 유도하였다. 하지만 주어진 대상을 복수시점으로 감지하고도 2차원적인 평면에 표현한 입체주의 시대 회화와는 달리 입체감과 공간감을 지닌 조형물로 제작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변화를 주고자하였으며 표면처리도 다양한 색상을 사용한 입체주의시대 회화와 같이 밝고 화려하게 연출하였다. 기존에는 도자의 회화적인 표현을 위해 주로 도판에 그림을 그리는 소극적인 방법이 선택되었다. 여기에서 점토는 주원료라기보다 회화에서의 캔버스의 역할을 대신할 뿐이었다. 하지만 본인은 붓 없이도 도자의 주원료인 점토를 붓으로 대용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한 효과를 주고자한다.

2. 제작과정

곡선이 많은 본인의 작품에는 내구성이 강하고 질력이 뛰어나 다양한 형태로 성형하기 용이한 조합토가 적합하였다. 성형과정에서 도판으로 일부분을 막아 투시와 비투시의 공간 대비 효과를 의도하여 2차원적인 평면을 3차원적인 공간감을 가진 덩어리 형태로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유도하였다. 건조시에는 이어붙인 부분을 비닐로 씌워 건조시간을 다른 부분보다 비교적 오래 걸리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거친 표면과 그 표면에 유약 점착을 위해 1차 소성 후 작품의 표면에 초벌화장토를 스펀지로 두드려 발라주고 백매트유, 흑매트유, 투명유, 눈꽃유를 분무기로 뿌려 시유하였다. 건조시킨 작품은 0.3루베 전기 가마에서 10시간 동안 800℃로 1차 소성하였다. 시유단계를 거친 후 1250℃로 14시간 동안 2차 소성하였으며 일부작품은 3차 소성까지 하였다. 마지막으로 철판에 전산볼트를 안전하게 용접시킨 후 미리 뚫어준 작품 하단의 구멍에 맞춰 너트로 고정시켜주었다.

3. 작품사진

작품명	작품사진
He is	 <p>조합토, 흑매트유, 1250℃ 산화(2차소성), 820×250×620 mm</p>
She is	 <p>조합토, 눈꽃유, 1250℃ 산화(2차소성), 820×250×620 mm</p>
소년.. 소녀를 만나다	 <p>조합토, 백매트유+안료, 1250℃ 산화(2차소성), 1000×250×800 mm</p>

작품명	작품사진
꿈꾸는 여인	 <p data-bbox="394 564 572 629">조합토, 백매트유+안료, 1250°C 산화 (2차소성), 700×200×800 mm</p>
coffee & wine	 <p data-bbox="358 923 605 987">조합토, 초벌화장토, 투명유+안료, 1250°C 산화 (2차소성), 710×300×800 mm</p>
my parents	 <p data-bbox="386 1315 576 1379">조합토, 초벌화장토, 흑유, 1250°C 산화 (2차소성), 500×300×780 mm</p>
we're the one	 <p data-bbox="386 1687 576 1752">조합토, 백매트유, 던컨유, 1250°C 산화소성, 540×100×560 (mm)</p>

IV. 결론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작품 표현 방법에 있어서 개인적인 독창성과 표현성을 불어넣어 예술성을 가미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도자조형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형태를 변화시켜 무한한 조형성을 추구하였고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해 보았으며 환경과의 조화 역시 작품 디자인에 있어서 주요 관건이었다. 첫째, 파티션은 본래 공간을 차단하고 구획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꽃이나 선반으로의 부가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그 개념의 의미가 확장, 통합되었다. 둘째, 파티션을 제작함에 환경과의 조화가 가장 중요하였으며 그 점이 작품 디자인에 있어서의 큰 어려움이었다. 셋째, 흙의 내열성과 소성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대형 파티션 제작에의 어려움은 분리하여 소성한 후 전산 볼트로 이어 그 규모를 크게 제작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 넷째, 아쉬운 점은 이동을 위해 작품을 분리할 때 파손의 위험이 크며 전산볼트에 고정시키는 과정이 번거롭다는 점이였다. 이는 앞으로 연구 개발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우리의 생활 환경 곳곳에 조형물을 제작하여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적 즐거움을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작품 제작에 있어서 기존개념에서 탈피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은 기발하고 창의적인 작품의 개발로 이어지고 그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 결과 탄생한 작품들이 각박하고 고단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미적 즐거움과 기능적 편리함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1] 김광숙, 「모더니즘에 나타난 시간성과 공간성」,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2] 신상호 『현대도예-미래를 향한 움직임』,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1996.
- [3] 안연희, 『현대미술사전』, 서울: 미진사, 1999.
- [4] 오광수, 『서양근대회화사』, 서울: 일지사, 1976

[5] 임두빈, 『한 권으로 보는 서양미술사 이야기』, 서울: 가람기획, 2003

[6] Clark, Garth. 신광석 역, 『도자예술의 새로운 시각』, 서울: 미진사, 1986.

[7] Cooper, Emmanuel. Ten Thousand Years of Pottery. Pennsylvan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0.

[8] Cox, Neil. 천수원 역, 『입체주의』, 파주: 한길아트, 2003.

[9] De Waal, Edmund. activist 20th Century Ceramics, New York: Thames & Hudson Ltd, 2003.

[10] Duchting, Hajo. 김재웅 역, 『(어떻게 이해할까?) 입체주의』, 서울: 미술문화, 2003.

[11] Durozoi, Gerard. 광동준 역, 『세계현대미술사전』, 지편, 2008.

[12] E.H, Gombrich. 백승길·이종승 역, 『서양미술사』, 서울: 예경, 2003.

[13] Gleize, Albert. 『큐비즘』, 서울: 과학기술, 1995.

[14] Golding, John. 황지우 역, 『큐비즘』, 서울: 열화당, 1988.

[15] HH, Arnason. 『현대미술사』, 형설출판사, 1979.

[16] Naylor, Gillian. 박연실 역, 『미술공예운동』, 서울: 창미, 1995.

[17] Strickland, Carol. 김호경 역, 『클릭, 서양미술사』, 서울: 예경, 2000.

[18] 강제영, 「현대도예의 장르 해체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9] 모인순, 『점토혁명- 예술언어로의 전환』, 보문당, 1995.

[20] 김문정, 「후기 현대 도예의 탈근대주의적 시각과 기표해체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1] 박승순, 「큐비즘이 현대미술에 끼친 영향」, 홍익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22] 엄혁용, 「추상 표현주의 도조의 미술사적, 환경적 동인과 특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07.

[23] 이인숙, 「피카소의 입체주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24] 정계옥, 「파블로 피카소의 회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25] 정담순, 「점토조형물에서 추상성 연구」, 단국대학교 논문집, 1980

[26] 홍현숙, 「20C초 조각에 있어서의 입체주의」,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저자 소개

김 석 호(Seok-Ho Kim)

정회원



- 1998년 6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석사
- 2008년 3월 ~ 현재 : 목원대학교 디자인학부 도자디자인과 교수

<관심분야> : 제품디자인, 공예문화 마케팅

김 승 연(Seung-Yeon Kim)

정회원



- 2009년 8월 :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미술학석사)
- 2009년 ~ 현재 : 홍익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관심분야> : 제품디자인, 공예문화 마케팅

김 승 만(Seung-Man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단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미술학석사
- 2008 3월 ~ 현재 : 홍익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관심분야> : 제품디자인, 공예문화 마케팅